

1) 正常人 10例에 對한  $^{198}\text{Au}$ 의 血中除去率은  $3.26 \pm 0.86$ 分이었다.

2) 各種 肝疾患에 對한  $^{198}\text{Au}$ 의 血中除去率은 慢性 肝炎(11例)에서  $3.57 \pm 0.57$ 分, 肝硬變症(9例)  $3.82 \pm 0.87$ 分, 肝癌(7例)  $3.94 \pm 0.18$ 分으로 延長되는 傾向을 보여 주었다.

3) 各種 肝疾患에 있어서 SGOT 40 units 以下인 群의 血中除去率은  $3.53 \pm 0.89$ 分이고 SGOT 40 units 以上인 群은  $3.92 \pm 0.83$ 分으로서 有意하게 延長되었으며 ( $P < 0.05$ ), alkaline phosphatase가 2.3 units 以下인 群에서  $3.58 \pm 0.87$ 分, 2.3units 以上인 群은  $3.9 \pm 0.88$ 分이었으나 兩群에서 有意한 差異는 없었다.

4) 肝走査像을 土臺로 한 觀察成績은 肝走査 所見上 正常 肝을 扐한 群의 血中除去率은  $3.31 \pm 0.65$ 分이었으며 脾臟像을 扐하지않고 異常所見을 扐한 群은  $4.06 \pm 1.13$ 分이었고, 異常所見과 脾臟 및 骨髓像을 扐한 群은  $3.78 \pm 0.8$ 分으로서 正常肝 所見을 扐한 群에 比하여 顯著하게 延長되었다( $P < 0.05$ ).

## 24. 肝走査像 1112例의 임상적 고찰

### A Clinical Observation in 1112 Cases of Liver Scan

조선의대 내과

박승일 · 강대원 · 조국현 · 오현관

1975년 1월부터 1977년 7월까지 2년 6개월간 조선대학교 부속 병원에 내원하여 肝走査를 실시한 입원 및 외래 환자 1,112例를 대상으로 肝走査 所見, 간 기능검사, 이학적 소견 등을 相互 比較하였다.

1) 남자 872例, 여자 240例로 남녀 비는 3.6 : 1이었다.

2) 질환별로는 肝癌 164例(14.7%), 肝膿瘍 66例(5.7%), 肝硬變症 190例(17.1%), 肝炎 149例(13.4%), 其他 430例(38.7%)이었다.

3) 肝走査에서 肝의 크기는 縮小群이 146例(13.1%), 正常群이 504例(45.3%), 肥大群이 462群(14.5%)였다. 질환별로는 肥大가 肝癌의 73.2%, 肝膿瘍의 78.8%, 肝硬變症의 47.3%로 각각 제일 많았고 肝炎에서는 正常 크기가 57.7%로 제일 많았다.

4) 肝走査에서 심한 splenic visualization은 전체의 13.4%(160例)에서 나타났고 縮小群의 57.5%, 正常群의 2.4%, 肥大群의 13.9%에서 있었다. Splenic visualization이 심한 160例中에서 간기능 검사를 했던 140

例의 89.0%(130例)에서 albumin/globulin 比가 顛倒되었다. 160例中 65.0%(140例)에서 腹水を 보였다.

5) Splenic visualization이 없는 426例의 2.8%(12例)에서  $4000/\text{mm}^3$ 이하의 백혈구 감소증이 있었으나 splenic visualization이 심한 150例는 12.0%(18例)에서 나타났다.

6) 腹水는 albumin/globulin 比의 顛倒가 있는 368例의 43.5%(160例)에서, albumin/globulin 比의 顛倒가 없는 408例의 10.8%(44例)에서 나타났다.

7) 이외에 肝走査所見에서 space occupying lesion, radioactivity의 정도, spleen uptake의 정도와 이학적 소견, 간기능 검사, clonorchis sinensis 등과의 상호 관계를 比較해 보았다.

## 25. $^{99m}\text{Tc}$ -MAFH를 사용한 肺灌流스캔 : 塵肺症의 血流動態를 파악하기 위하여

가톨릭醫大 방사선과학교실

金春烈 · 朴龍輝

肺灌流스캔은 혈액제에 의한 모세혈관 미세혈전현상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며 폐혈액순환의 관류동태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검사로서 단순흉부 X-선검사에서 식별할 수 없는 폐기능 및 형태학적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. 따라서 폐나 심장수술의 전단계검사로써 배농을 수 없으며 폐동맥조영술과 버금가는 진단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.

1969년 Boyd와 Morris가 macroaggregated ferrous hydroxide(MAFH)를  $^{99m}\text{Tc}$ 에 방사화학적으로 부착시켜 동물및 인체에 투여후 폐관류스캔에 성공하였다.  $^{99m}\text{Tc}$ -MAFH는 조제과정의 비교적 간편하고 제조된 Tc-MAFH는 방사화학적으로 대단히 안정하다. 즉 서로 잘 부착되어 멸균처리 과정에서도 분리되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 저장이 가능하다. 한편  $^{99m}\text{Tc}$ 는 페스캔에 알맞는 물리적 특성, 즉 6시간의 짧은 반감기와 140 KeV의  $\gamma$ 선을 방출하므로 일시에 대량을 투여할 수 있고 차폐가 비교적 경하기 때문에 계수율이 높아 스캔의 해상력이 좋다.

저자들은 진폐환자들의 폐혈관관류동태를 파악하여 진폐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예후를 알기위하여 폐관류스캔을 시행한 결과 좋은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재료 및 방법

### 1. 재료

1977년 1월부터 1977년 9월까지 9개월동안 진폐